

건설산업...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다

글로벌 건설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성장한다

- 2020년 12.7조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향후 토목이 시장 견인할 듯 -

최 석 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ichoi@cerik.re.kr

세 계 건설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은 이 슈로만 보았을 때는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여러 동인의 우선순위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관심 시장 자체가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해외 건설시장의 움직임에 다소 둔감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 건설산업에서 해외 건설시장은 더 이상의 선택적 시장이 아닌 필수 시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은 기업의 생존 전략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건설시장 전망 및 성장 동력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7.5조 달러 수준이다. 이 중 선진국 시장이 약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이

2020년에 가면 약 12.7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장 동인은 중국, 인도, 브라질, 폴란드 등 신흥 개도국 시장이다. 향후 시장에서 이들 시장은 선진국 시장 규모를 넘어 절반 이상의 비중(55%)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이할 만한 점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미국 시장은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는 것과 중국 시장이 2018년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녹색 역시 향후 시장을 견인할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별 시장에서는 토목 시장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까지 연평균 6.78%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플랜트 부문의 경우 연평균 4.5%의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특히, 녹색 에너지와 관련된 발전 부문과 중동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화공 플랜트 부문이 성장을

2008 VS 2020 세계 건설시장 규모 비교(매출액 기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축 시장의 회복세는 가장 더딜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 역시 2.4%로 다른 상품군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이후에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녹색 빌딩 상품군이 될 것이다.

세계 건설시장의 주요 이슈

세계 건설시장의 주요 이슈는 다양하지만 크게 ① 글로벌화, ② 인력 시장의 위기, ③ 녹색 건설, ④ 기술 혁신 가속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녹색 건설은 이미 『CERIK저널』을 통해 자주 소개하였기 때문에 녹색 건설 이슈를 제외한 주요 이슈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글로벌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건설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 자본의 투자 증가, 숙련 인력 및 자재의 글로벌 소싱, 기업간 입찰 경쟁 심화, 개별 국가의 경제 위기, 안보적 위협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간 입찰 경쟁에는 중국, 인도, 터키 국적 기업의 참여가 늘어남으로 인해 국내 건설기업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사업의 발주 단위(단위 사업 규모)가 과거보다 확대된 것과 함께 이러한 글로벌화의 영향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특정 권역 혹은 상품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유력

Construction in 2020

더 빠르고 싸고 안전하게

- 안전/보건 → 보증 심사의 주요 요소로 작용

설계와 생산의 통합 가속

- IT 기술 : 5D 모델, BIM
- Interoperability 확보
- 미국, 유럽 :
Planning 관련 승인 28일 내 완료를 목표
(온라인, 법적 요건에 부합된)

친환경 시설 일상화

- 모든 표준과 기준에 친환경성 고려
-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급증

윤리적 책임 강화

- FIDIC, AIA, AGC 등 표준 계약에 반영
-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 윤리 서명

Nanotechnology

→ Structural Steel Frame

100년 내구/고강도 유리 섬유 콘크리트

- 고강도, 경량, 경제성, 스마트화
- RFID 등 Tag 기술 + GPS

인적 자본(Human Capital)

→ 주요 경쟁 수단

- 기업 평가의 주요 요소로 대두
- 노동 인력 보유 전략

건설회사 수익성 향상

- 현재 1~2% → 4~7% 향상
- 건설 자재 물가 상승 → 낭비 제거, 재사용/재활용 증가 → 수익 확보



자료 : Key Trends in the European and U.S. Construction Market Place(2008).

한 수단으로 인수 및 합병(M&A) 전략이 일상화될 지 오래되었고,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설계 및 엔지니어링사간의 인수 및 합병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계 건설기업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유럽계 기업에 대한 인수 및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Workforce 동향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건설 현장의 숙련된 노동 인력의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

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동유럽권 노동자, 미국은 중남미권의 노동자 유입으로 건설 현장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사고율이 높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유무형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 건설산업은 생산성 향상, 각종 캠페인, 민관 협력 교육, 성과 측정, 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기술 혁신

한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건설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술 혁신 분야로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혁신 기술, 신공법(자재 포함)/프로세스 혁신, 녹색 빌딩, 정보화 기술(BIM 등), 선작업 및 모듈화 등이 꼽혔다. 하지만 기업의 속성상 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숙련 기능공과 신기술 적용에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도 부족하고, 기술 혁신에 필요한 법·제도·기준의 장벽 역시 해소되어야 할 부문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버즈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프랑스의 교각 250미터 높이의 밀라우다리와 같은 선도 프로젝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Construction 2020

이러한 세계 건설산업의 주요 동향을 가지고 2020년의 건설 현장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그 결과 중국계 건설기업의 성장(미국 시장 진출)과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기업의 주요 경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은 국내 건설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국내의 대형 건설사는 2015년 혹은 2018년까지의 성장 목표를 매우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장과 달리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소홀히 하였던 인력과 조직의 정비, 관리 기술(project management)과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세계 건설시장은 항상 움직이는 상태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어떤 시장이든 존재하고 있다. 즉, 항상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항시적인 시장은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된다.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경쟁 상대는 점차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 규모(덩치)는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 50위권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체력)은 아직까지 내수 시장 위주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쟁 무대와 상대는 선진국 시장 및 선진국 국적의 기업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미국 건설시장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임과 동시에 비교적 안정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시장이다. 미국 시장 진입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글로벌 기업 중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

따라서 내수 시장 중심에서 가능한 한 빨리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CERIK